

性愛소설, 서점가 본격 상륙

올들어 10여종 출간... 프랑스작품이 주류 이뤄

최근 서점가가 '황색주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우리 출판계가 힘겹게 지켜온 윤리적 마지노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그간 본격적인 소개가 유예되었던 성애소설이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문학사에 있어 에로티시즘의 정수로 아직도 로렌스의 「채털리부인의 사랑」을 손꼽을 대다수의 국내독자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성애소설은,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에 있어서는 포르노라는 혐의점이 짙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 그러나 성이라는 '창'을 통해 존재의 내면세계를 엿보고자 하거나, 더 나아가 현대문명을 가능케 한 억압기제를 해체시킴으로써 현대문명을 부정하고자 하는 연결고리로 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문명비판적 사상을 성애소설의 배면에서 읽어내는 세심한 독법이 이들 작품을 포르노라는 불명예로부터 구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금단의 영역에 도전한 것으로 일단 평가될 성애소설이 대부분 번역소설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문화형성을 가능케 한 '발생사'를 서구지성사의 흐름 속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단지 호기심만으로 책을 읽으려는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서점가 휩쓰는 황색주의 물결

우리 출판계에 황색주의 바람을 일으킨 '주동자'는 흔히 '1954년의 삼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빈슨 크루소의 사랑」 「0의 이야기」 「로리타」가 번역되면서부터. 프랑스지식인 세력의 거센 저항으로 문학에 대한 모든 검열제도가 폐지된 1954년 프랑스문단에 한꺼번에 나온 이들 작품이, 70년대말 번역된 「로리타」를 제외하고, 국내에 번역 소개된 것도 거의 동시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이 발표된 그해 프랑스의 살롱과 카페를 온통 논쟁의 도가니로 몰고간 「0의 이야기」 (폴린 레이쥬 지음, 이정운 옮김, 타임기획, 1990)는 "금세기에 등장한 가장 외설스럽고 불가사의한 소설"이라는 평을 들은 문제작. 주인공 0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학대와 정신적 모욕이 오히려 그녀를 성적인 충족감에 젖게하여 매저키스트가 되는 과정이 농밀하게 묘사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동물적인 성적

최근들어 쏟아져나오고 있는

일련의 성애소설들은 그 묘사의

구체성에서 거의 포르노와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억압기제를

해체시키는 연결고리로 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문명비판적 사상이

이들 성애소설의 배면에 깔려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유희가 곳곳에 묘사된 이 작품은 발간된 이듬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작품에 수여하는 '듀 마르'상을 수상했다.

「로빈슨 크루소의 사랑」 (험프리 리처드슨 지음, 김한경 옮김, 눈, 1990)은 다니엘 데포우의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을 패러디한 작품. 향해도중 폭풍우를 만나 무인도에 표착한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만을 그린 원작에 대해 "아무리 무인도에서의 생활이라지만 혈기왕성한 사내가 육체적 욕구, 그중에서도 특히 혈기왕성한 성욕에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을까"라는 정당한 (?)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로빈슨이 억압된 성욕을 해소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원작이 로빈슨의 '사랑'을 제외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된 당대의 기독교적 도덕율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 있는 작품이다. 원제는 「로빈슨 크루소의 성생활」.

「로리타」 (블라디마르 나보코프 지음, 신동란 옮김, 모음사, 1979)는 앞의 두 작품의 저자가 여전히 베일에 싸인 것에 비해(그들은 가명을 썼다) 널리 알려진 러시아 망명작가가 쓴 작품. 발표당시 포르노시비에 걸려 영어로 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출간되는 수난을 겪었다. 중년남자가 10대소녀를 사랑하는 비윤리적인 즐거이지만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고독이 짙게 깔려 있는 작품이다.

「에로티즘」으로 국내에 이미 소개된 바타이유의 「눈의 이야기」 (이재형 옮김, 푸른숲, 1990)는 섹스와 기벽의 광란에 스스로를 몰입시킴으로써 삶의 무미건조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끔찍한' 성적 유희가 그려진 작품집이

다. 바타이유의 이러한 에로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철학체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타이유는 현대사회의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금기위반'의 이론을 내세웠는데, 위반이야말로 인간 내부에 있는 폭력을 잠재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의 철학체계의 요체다.

미국의 대표적인 성애작가 헨리 밀러의 연인인 아네이스 닐이 쓴 「피에르란 남자」 (김수경 옮김, 열음사, 1989)는 「0의 이야기」와 함께, 물론 「0의 이야기」는 여전히 추정에 불과하지만, 여성이 쓴 성애소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주인공 엘레나가 여행지에서 만난 피에르와의 체험을 통해 새롭게 성의 세계에 눈뜨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여자들은 지금까지의 남성작가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섹스의 노예가 아니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에 에로티시즘을 용해시키는 직관적이고 섬세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꽃을 훔치다」 (도미시아 다케오 지음, 주태길 옮김, 푸른꿈, 1989)는 주로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포르노 소설의 원산지로 알려진 일본의 대표적인 성애작가의 작품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지의 사회에 뛰어들려는 소년에게 재간이 뛰어난 유부녀가 "가지각색의 교육을 베풀어" 성에 눈뜨게 한다는 즐거리의 일본판 '개인교수'.

「권태」 (문학사상사, 1989)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가자, 장미여관으로」 등으로 사회통념을 넘어선 파격적인 성애찬 문학론을 펼쳐온 마광수교수의 첫 장편소설. 관능적인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해방을 꿈꾸는 페티스트라고 자처하는 작가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미로서 '권태'를 그리고자 했다면서 에로티시즘문학에 대한 비판에 대해 논박하는데, 이런 작품들이 "오히려 억압된 정서를 대리만족시켜 주어 평화로운 심성을 가능케 한다"는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성애소설의 한국적 수용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성애소설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애소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이들 작품이 사회에 미칠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싸고 논객들 사이에 대립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성애소설을 바라보는

입장은 양성화가 음성화보다는 더욱 바람직하다는 일반론에서 출발하여 유독 문학작품에서만 성문제를 다루는 것을 반대해야 할 하등의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개방의 길목으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고 영화나 비디오분야는 언어적 형상력으로는 도저히 뒤쫓지 못할 정도로 성애에 대한 묘사가 '위험수위'를 넘어서었다는 것. 더욱이 이념적인 문제에 대한 당국의 정책이 증명했듯 공권력을 통한 조치는 오히려 대중적인 호기심만을 자극할 소지가 크다는 것과 우리사회의 문화적 성숙도에 비추어 볼때 큰 무리없이 소화할 자정능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한경씨(번역문학가)는 이런 입장에 대해 대체로 긍정하면서 90년대에 들어 성애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회적 배경으로는 "지난 시대의 정치적 발전과정이 결과한 권위적인 것의 몰락이 문화적인 면에 투영된 결과"라고 설명. 이재형씨(외대불문과 강사)의 경우는 1950년대의 프랑스지성계의 분위기와 우리 사회분위기의 유사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당시 프랑스는 2차대전에서 독일에게 패배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 지식인들이 좌절에 빠졌다는 것. 결국, 우리사회의 만족스럽지 못한 개혁속도가 지식인들을 이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다.

그러나 역기능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화려한 수사학의 동원에도 불구하고 성애소설은 성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들도 프랑스에서 유독 본격적인 성애소설이 발원하게 된 것은 서구역사에 대한 지성계의 전면적인 반성에서 기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구의 지성사가 이성의 역사였다고 할 때, 그것의 끝간 데가 나치즘의 출현이었다는데 유럽인들은 좌절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럽지성계는 의식의 역사에 대한 저항으로서 무의식의 강조, 혹은 합리성에 대한 도전으로서 비합리성 추구라는 대안제시 등의 사회적 의미망 속에 성애문학을 출현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화적 저항의 한갈래로 출현한 성애문학이 자본의 자장에 말려들어 결국 섹스산업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명호씨(문학평론가)의 말이다.

—이권우 기자